

01 교회소식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간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와 스리랑카·이집트·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 안에서 죽어지는 삶 곧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한다.

03 기획특집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심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씨앗을 심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영육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04 간증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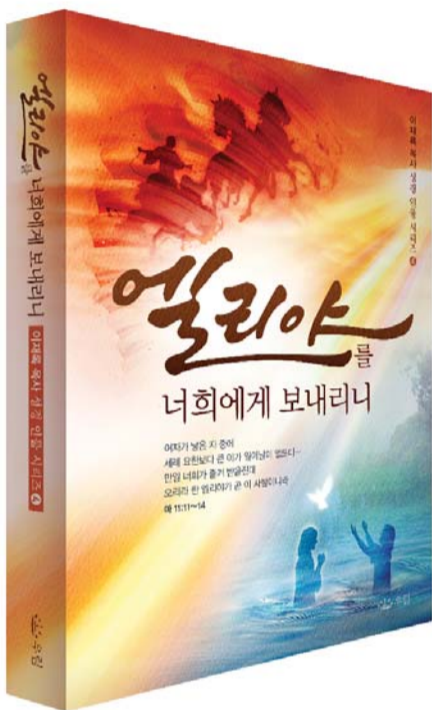
‘만민’을 만나 축복이 넘친다는 대만 야오란상 목사와 만성중이염과 돌발성 난청을 치료받고 청력이 회복된 배종석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818호 2017년 12월 17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재록 목사의 11번째 저서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권능의 선지자 엘리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으로 오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 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념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경인물 시리즈 4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가 발간되어 오는 12월 25일부터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절찬리에 판매된 성경인물 시리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아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을 잇는 네 번째 책자로, 주의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활동한 엘리아의 사역과 승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다룬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뉘어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을 건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이룬 후 회리바람을 타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기까지 엘리아 선지자의 뜨거운 삶의 여정이 조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내밀한 섭리와 피조물 중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역사의 씨줄과 날줄에 맞물려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한편 엘리아와 세례 요한, 주님을 통해

완성된 인류 구속사의 거대한 맥을 짚어 주는 도표와 함께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다수의 지도와 사진도 수록되어 있다.

진화론과 인본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떠밀려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엘리아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권능의 사역자들을 보내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뜨거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며 참된 신앙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 사전 예약 판매 : 2017. 12. 6.~20.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www.kyobobook.co.kr)

## 스리랑카·이집트·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스리랑카·이집트·파키스탄 3개국에서 목회자, 청년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진행되었다.

스리랑카 첫 집회로 11월 27일에 길태식 목사는 콜롬보 시 와팔라 지역에서 ‘청년 일꾼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다음날인 28일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담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대표적 설교 ‘십자가의 도’에 대해 전했다. 마지막 29일 손수건 집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요일 4:16)에 대해 설교한 뒤,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파킨슨병, 비루관 폐쇄, 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비롯하여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집트로 이동한 선교팀은 12월 1일, 만민FOUNDATION 목회자 및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적 예배’(요 4:24)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2일에는 카이로 시 엘 코스스 지역 손수건 집회에서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고전 2:6~9)을 전하자 참석자들은 사람의 지혜로 풀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무도 깊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이어진 손수건 기도를 통해 치료는 물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약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받는 등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3일, 카이로 시 바팀 지역 손수건 집회

에서는 길 목사가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를 전했고, 손수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해 심장병, 당뇨병 등이 치유되고 시력이 좋아지는 등 간증이 넘쳤다.

12월 4일, 파키스탄에 도착한 선교팀은 예사 나그리 지역에서 ‘영적예배’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5일과 6일에는 카라치, 라호르 지역에서 청

년 세미나가 열렸는데, ‘바라봄의 법칙’(히 11:1~2)이라는 제목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파키스탄의 변화와 부흥을 주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사진 1, 2). 6일 저녁에는 이삭TV 사장 안와과잘 목사 주관으로 라호르 FGA운동장에서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다(사진 3). >>관계기사 3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31~33)

#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각색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치료 주시며,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음을 알려 주시고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심으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밤낮으로 애쓰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선한 일만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훼파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기에 ‘여우’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우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제단들을 향해 오히려 잘못됐다 판단, 정죄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곧 여우와 같은 모습이지요. 혹여 말이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훼방하여 주님으로부터 여우라는 말을 듣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2.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삼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이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섭리와 부활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놓임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롬 6:23, 10:9).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질 수 있기에 이를 가리켜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구원의 길에 관한 모든 일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요 19:11).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어떠한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셨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 3.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와 교훈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가야 할 길을 오직 아멘으로 가셨기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이란 뜻으로, 이사야 52장 1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사 2:3).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말씀은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그 안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선지자라 하면서 예루살렘 밖, 즉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산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선지자는 어떤 시험 환란이나 핍박이 오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유혹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며 사나 죽으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요일 1:7), 그 안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죽게 되지요. 살아 있던 자존심이 죽어지고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틀이 깨어 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말씀 안에 철저히 죽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죽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죽음은 생명이요, 영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다가 죽는 예루살렘 밖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 곧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죽어도 그 안에서 죽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삶을 사심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책망한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알고 두려워했지요(마 14:2).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여우’라 하시며 전할 말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난해 구절이라 알려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 1. 예수님께서 헤롯왕을 ‘여우’라 칭하신 이유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셨을까요? 이미 세례 요한까지 죽인 헤롯왕이 이번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려는 것이 마치 더럽고 악한 여우의 행동과 같았기 때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 리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스리랑카·이집트·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스리랑카·이집트·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에 이르며 목회자들이 깨어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 스리랑카 목회자 세미나(11.28)

▼ 간증자들



▼ 스리랑카 손수건 집회(11.29)



▼ 이집트 목회자 세미나(12.1)



▼ 이집트 손수건 집회(12.2)

# 열매 맺는 삶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를 심고 거두는 작업이 있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먼저 심을 때라야 거둘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 애쓰며 기쁨의 씨를 심는 만큼 기쁨의 열매가 맺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마음 중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며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진다. 기도도 힘쓰고 애써 심어 나갈 때 더 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열매로 거둘 수 있다. 그동안 어떻게 심고 거두었는지 세 가지 분야로 살펴 본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나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만 충만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상상치 못할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도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다(빌 4:4). 혹여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받은바 은혜를 잊거나, 힘들어 낙심하거나 육신의 생각 속에 충만함이 떨어져 사명을 놓고 피하려 하지는 않는지, 있어야 할 자리는 근근이 지키지만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순간에도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니 어려움이 신속하게 축복으로 바뀌고 영적으로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나요?

창조주 하나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연단을 받아도 오직 감사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며 범사에 이길 능력을 주심'을 확신하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다.

만일 불평불만을 하며 슬퍼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믿음과 거리가 먼지를 깨달아야 한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부족할수록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축복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감사의 고백만 하는 마음에 맺힌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 행함 있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만일 기도가 막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란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게 되며 더 깊은 차원을 뚫어지게 된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능력을 구하게 되므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뚫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혹여 기도를 하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듯하다면 그만큼 믿음의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축복하시며,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때가 되면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육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12**  
DECEMBER 2017  
12/17~12/2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 심자가의 도 17-22
- 참 가치
- 믿음의 분량 14-18
- 천국 1-7
- 일곱교회 1-4
- 지옥 12-16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3-6
- 요한일서 강해 37-39

**GCN TV 설교**

- 걸음을 내어버리라(이수진 목사)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미영 목사)
- 자기 발견 2(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74(이화선 목사)
- 욥기 강해 44(신동초 목사)
- 열 재앙 40(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스페셜 7
- 모두 드려요 22
- 옛날 옛적에(시즌2) 8
- 내 마음의 찬양 4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9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6
- 마지막 때 7
- 창조와 과학 17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
- 독일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3

전국 어디서나 **alleh tv 882번** | 세계 어디서나 **Roku TV**

# “성결의 복음을 통해 축복받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야오란상 목사 (56세, 대만 신잔만민교회)



청년시절에 복음을 접한 뒤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던 중,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살려 주시면 생명 다해 주를 섬기겠노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그 결과 아버지는 소생하셨습니다.

당시 서른아홉 나이에 어린 자녀들도 있었지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 기독교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기에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나 지휘 등으로 헌신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제 뜻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주의 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2005년, 교회 젊은이들을 인솔하여 싱가포르의 대형 교회가 대만에서 주최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는데 이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말씀 무장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큰 교회에서 말씀 공부 과정을 밟고 난 후에는 싱가포르를 물론 말레이시아, 중국에까지 선교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2008년, 싱가포르에서 만난 에스더 심 집사님을 통해 ‘만민’에 대해 듣고 ‘만민찬양’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지요.

과연 만민찬양은 너무 은혜로웠고 제가 원하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잔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터(출 15:25)에도 가 보았습니다. 신령한 곳에 가니 저도 영안이 열려 천사들이 둘러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한 체험까지 하고 나니 당회장님은 어떠한 분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을 탐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 복음의 진수를 맛보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긴 『십자가의

도』에서 ‘뱀에게 종신토록 흠을 먹으라’(창 3:14)는 말씀이 원수 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밟으로 삼아 시험, 환난, 재앙을 준다는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쾌한 말씀에 놀라기만 했지요.

성경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는 성결의 복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복된 소식을 선교하러 갈 때마다 전했습니다. 2009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견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팡이를 버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버렸으며,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불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기쁨으로 간증하였지요.

당회장님 기도의 위력, 권능의 역사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무주에서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제단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지요.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였고, 2014년 만민의 지교회로 정식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GCN방송으로 각종 예배는 물론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여러모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7년간 임태하지 못한 성도가 임신하고, 하지가 마비된 청년이 온전해졌지요. 저도 화상과 노안, 가슴 통증을 치료받았고 무안단물로 쌍꺼풀도 생겼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아가니 가정교회에서 이제는 성전을 갖춘 교회가 되었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삶 속에 치료와 축복의 간증이 넘치니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 대만 신잔만민교회는 GCN방송으로 예배는 물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배종석 집사 (62세, 창원만민교회)

# “만성중이염, 돌발성난청을 치료받고 청력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열 살 때 오른쪽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만성중이염을 앓았습니다.

50여 년 동안 고름이 흘러나와 항상 솜으로 닦아내야 했고 고막이 녹아 없어져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창원만민교회에 다니면서 귀에서 나오던 고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에 왼쪽 귀가 갑자기 먹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돌발성 난청이라 했고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면서 제게 보청기를 권했습니다.

왼쪽 귀 하나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마저 잘 들리지 않으니 굉장히 난감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신앙의 기초 말씀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반복해 들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자기 전에 설교를 듣고 당회장님의 한 자기도를 받았는데, 그날 꿈속에 당회장님께서 아주 온유한 미소를 띠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면 될 텐데...”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저는 꿈에서 기도받은 후 비몽사몽간에 귓속의 신경과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전과는 달리 기분이 아주 상쾌했지요.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짜아~’ 하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지요.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게 왼쪽 귀뿐 아니라 청력을 아예 상실했던 오른쪽 귀에도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왼쪽 귀의 청력이 살아났고, 정상인보다 더 양호한 상태라며 의사도 깜짝 놀랐지요. 더욱이 8월, ‘만민 하계수련회’ 은사집회 때에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왼쪽 귀에 약간 남아 있던 ‘웅’ 하는 소리까지 완전히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오른쪽 귀도 이전보다 더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저의 귀를 치료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세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